



### III-1 고대~고려 시대의 문학 [3] 서경별곡

## 모의 평가 1회 정답 및 해설



#### 정답 및 해설

1 ①      2 ①      3 ④      4 ⑤      5 ①

### 1

| 정답 해설 | ㉠ 남녀상열지사(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사)라는 뜻으로,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이 고려 가요를 낚잡아 이르던 말이다.

㉢ 이 글은 입과 이별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정한이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㉡ 이 글은 창작 초기에 구전되었으나 조선 시대에 와서 기록되었다. 또한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는 노래이므로 흥겨운 분위기가 아니다.

㉣ 이 글은 작자 미상의 노래이지만, 현실 도피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.

### 2

| 정답 해설 | 이 글의 화자는 입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이별을 거부하고 입을 따르겠다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㉡ 이 글의 화자가 이별이라는 운명에 대립하여 이를 극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.

㉢, ㉣ 이별의 상황을 체념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입을 따르겠다고 하며 입이 강을 건너게 해 주는 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.

㉤ 이 글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이 오자 애꿎은 ‘사공’에게 탓을 돌리고 있다.

### 3

| 정답 해설 | ㉦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, 이를 통해 화자의 비극적인 상황을 부각할 수는 없다.

| 오답 피하기 |

㉠ 이 부분을 기준으로 각 연과 연이 구분되므로 형식면에서 각 연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다.

㉡, ㉤ 고유어를 사용하여 복소리를 흉내 냈고, 이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흥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

㉣ ‘위 두어령성 / 두어령성 / 다령디리’로 끊어 읽으면 전통적 율격인 3음보의 민요적 성격이 나타난다.

### 4

| 정답 해설 | ‘ 타들면 것고리 다’는 ‘(임이) 배를 타고 (건너편에) 들어가면 (꽃을) 꺾을 것입니다.’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입에 대한 걱정 혹은 불안을 엿볼 수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㉠ ‘아즐가’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흥구이다.

㉡ ‘쇼성경’은 고려의 수도인 송도(개성)에 비교하여 서경을 이르는 말이다.

㉢ ‘질삼뵈’는 ‘길쌈하던 베’를 의미한다. 이를 통해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.

㉣ ‘대동강’은 화자와 입이 이별하는 공간이며 둘을 갈라놓는 기능을 하므로 단절의 이미지가 강하다.

### 5

| 정답 해설 | [A]에서 여음구와 후렴구를 제외하면 | 보기 |에 제시된 ‘정석가’의 6연과 유사하다. 이와 같이 유사한 부분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로 궁중의 음악으로 채택되면서 당시 널리 유행하던 구절이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㉡ 두 작품은 모두 작가를 알 수 없다.

㉢ 두 작품에 해당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유로는 적당하지 않다.

㉣ 믿음(信)이 변치 않겠다는 내용은 나오지만, 이를 통해 유교 사상을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.

㉤ 구비 문학으로 전해지다가 기록 문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일 뿐, 이를 통해 기록 문학의 특징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.